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문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더 공경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봄에 땀 흘려 뿌린 것들을 가을에 풍성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남은 한해도 힘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후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서 때로는 광야처럼 고되고 힘든 순간을 지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니, 삶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가정되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 약속된 은혜의 선물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가정의 주인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4년 추석 가정예배

▷ 가정예배를 위하여 ◁

명절 가정예배는 단순히 과거에 조상에게 드렸던 전통적인 제사를 대체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을 낳고 길러준 조상을 기억하되, 영생의 복과 은혜를 가문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우리도 멀지 않은 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온 가족이 사랑과 친교를 나누는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시링교은혜교회

예 배 순 서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288장 다 같 이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아멘

기 도 가 족 중
 말씀봉독 출 14:10-14 (구약 102쪽) 사 회 자

10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 씬 가족대표
 기 도 가족대표
 주기도문 다 같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출 13:21,22)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뤄진 출애굽 여정이었지만 홍해 앞에서 그들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가 보낸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출14:10) 그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느냐"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냅니다.(출14:12)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출14:13)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할 어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며, 삶에 놓여진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케 하실 것을 바라본다면 그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을 감당하며 주어진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